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루터의 설교단에 중동의 한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상상만 했었더라도 그가 교회에 던진 96번째 논제는 다음 왜 여성이 이 설교단에 서 있느냐? 가 아니라 여성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왜 그리 오랜 기간이 걸렸는가?라는 질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인부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라고 질문했답니다. 한 인부는 그에게 나는 벽을 세우고 있소 라고 말했고, 다른 인부는 방을 만들고 있소 라고 했고, 세 번째 인부는 나는 새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벽이나 방이나 집 중에서 어디에 상상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지성과 마음의 태도가 모든 차이점을 만듭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에 도전합니다. 고린도에서 18 개월을 보낸 적이 있는 바울이 다시 돌아와 보니 이 신앙공동체는 처음에 그가 놓았던 기초와 교훈에서 동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분열과 거짓 실천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나가는 방식을, 기초놓기부터 실제 건축 과정과 최종점검까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지만 산만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어떻게 건축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하려는 이미지를 이해하려면, 고대의 주택 건축방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건축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보통 건축현장 근처에 광산을 세웠습니다. 광산에서 건축현장까지 이어지는 인간 사슬을 통해 돌을 운반했습니다. 돌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다가 마침내 건축현장에 도착합니다. 인간 사슬 중 누구든 돌을 떨어뜨리거나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건축 일정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돌을 전달한다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건축물과 건축자가 되는 것이 신앙공동체와 온전한 협력 가운데 건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건축과 돌나르기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물이 완성되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커뮤니티의 참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눈과 상상력을 하나님의 건물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돌들이 반드시 서로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 사역의 결과가 아름다울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돌들을 겸손하게 봉헌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암석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은 다양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똑같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개혁주의 정체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다양성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주장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건축과정에서 배워야 할 또다른 측면은 **건축의 최종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최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개인도 바울이든 아볼로든 여러분이든 저든 최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궁극적 이미지를 은혜롭게 펼쳐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건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날마다 더 가까워지도록 계속 개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초 위에 건축해야 할지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은 유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건축되고 있는 건물보다 건축하는 방법 혹은 방식을 더 강조합니다. 올바른 건축을 한답시고 서로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동떨어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루터가 교회를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려 했던 상징적인 장소에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교회 생활에 만연한 산만함에 도전했고 그의 의도는 교회의 실천이 올바른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여러 부분과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서 온 우리는 함께 연대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동역자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은 손과 노력에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만 떼내어 건축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되 함께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하는 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봅시다. 우리가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함께 일할 때에만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도전은 올바른 건축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또다른 도전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역이 불 속에서 살아남든지 못 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번역하자면 꼭 최종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배운 가장 놀라운 선언 중 하나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속적인 책임과 종교개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저를 놀라게 한 이야기 중 하나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강제로 추방된 시리아 난민인 14세 아이, 아부드 카플(Aboud Kaplo)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수지 애트우드(Susie Attwood)는 시리아 정교회 수도원에서 아부드와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부드가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YouTube 비디오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트우드는 아부드의 재능에 흥미를 느끼고 옥스포드 대학에 연락하여 옥스포드 대학이 복원된 19세기 바이올린을 그 십대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악기 골동품관에 소장되어 있던 바이올린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젊은 시리아 음악가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난민의 손에 그 역사적인 바이올린을 쥐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올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개혁주의 500년의 풍성한 유산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일궈내지 못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바이올린을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한, 우리는 진정한 축하의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루터가 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소중한 말을 [그들의 입에] 두지 않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그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축하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화해가 승리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상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탁월한 유산을 고양시켜서 "우리 유산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일어나 인간 존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당신은 피부색이나 젠더나 인종이나 여권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먹고 살 권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새로운 곡을 연주할 권리도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함께 현재에 살면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답하기 위해 개혁주의 교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정의와 사람들의 살림으로 검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프린스턴을 졸업할 때 저명한 설교자인 프레드 크래덕(Fred Craddock)은 "교회 최후의 유혹"이란 설교 중에서 교회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여 우리를 놀라켰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에 놀란 이유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낙담스런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나서 크래덕은 만약 교회가 자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VING GOD
**RENEW AND
TRANSFORM U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Called to communion, committed to justice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를 비워서 부활 능력으로 다시 충만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바이올린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가 설교단에서 외쳤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고통도 겪지 않는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비텐베르크 증거에 서명하는 행위는 우리의 바이올린들을 빌려주고 함께 건축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겠다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저 성명서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을 함께 짓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어 우리 상상력을 갱신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